

기아, RV집중·전기차 날개 달고 영업익 10조원 벽 깰다

삼성전자 제치고 영업익 2위 유력... 고부가가치 브랜드 자리매김 북미·유럽서 전략형 모델 성공...전기차로 올해 매출 100조 목표

기아가 지난해 두 자릿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3년 연속 최대 실적 행진을 이어갔다. 기아는 11.6조원이라는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올리는 기업을 토했으며 연간 판매량도 전년보다 6.4% 증가한 308만7384대를 달성했다.

회사는 올해 경영 심화 등 부정적 경영 여건에 맞서 전기차 등 고수익 차종을 다수 출시해 '매출 100조원'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영업익 삼성전자 제쳐...이익률도 '톱티어' = 기아는 25일 콘퍼런스를 통해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각각 15.3%, 60.5% 증가한 99조 8084억원, 11조6079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영업이익률도 3.2%포인트 오른 11.6%를 기록했다.

이는 직전 최대인 2022년 실적(매출 86조5590억원·영업이익 7조2331억원)을 크게 뛰어넘는 수치다. 1944년 창사 이래, 1998년 현대차그룹으로의 인수 이후 최대 실적이다.

기아가 각각 10조원과 10%를 넘는 두 자릿수 영업이익(조 단위 기준)과 영업이익률, 이른바 '더블

디짓' 실적을 올린 것도 지난해가 처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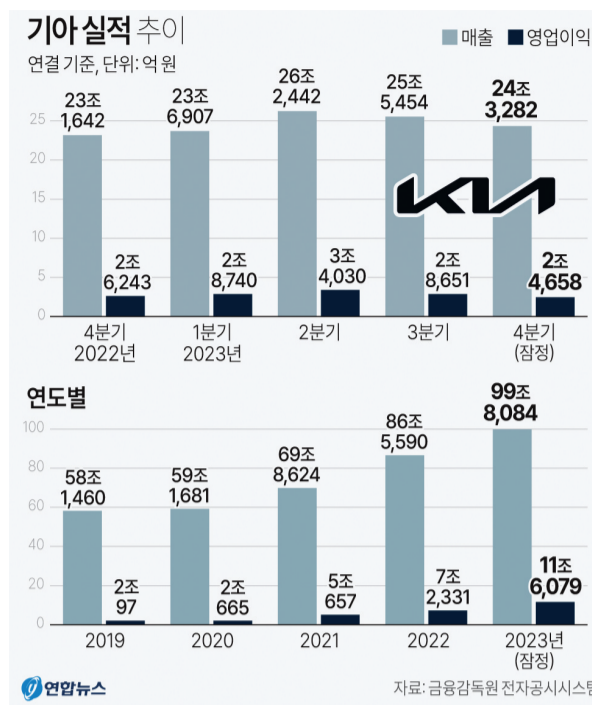
기아는 지난해 매출 1조원가량의 수익을 남겼는데, 그 결과 '만년 1위' 삼성전자(잠정 영업이익 6조5400억원)를 제치고 상장사 영업이익 2위에 오를 것이 유력하다.

이 밖에도 완성차업체로는 이례적으로 12%에 육박하는 영업이익률을 나타내며 메르세데스-벤츠, BMW 등 고급 브랜드와 함께 수익성 면에서 글로벌 '톱티어'에 오를 전망이다.

◇RV 중심 체질개선 통했다...친환경차 비중 ↑ = 기아는 유럽, 북미에서의 판매 증가와 RV, 친환경차 등 고수익 차종을 중심으로 한 믹스(차량용 구성 비율) 개선으로 지난해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제는 가성비보다 '제값 받기'가 가능해진 고부가가치 차량으로 자동차 선진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했다는 뜻이다.

이러한 기아의 부상을 놓고 "장기적으로 추진해 온 RV 집중 및 지역 맞춤형 전략이 성공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기아는 1998년 외환위기 당시 6조원 넘는 적자 상태로 현대차에 인수된 후 2000년대 중후반까지 뚜렷한 활약을 보이지 못했다. 하지만 2000년대 후반 당시 기아차 대표에 오른 정희선 현 현대차그룹 회장이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

기아의 체질을 RV 중심으로 개편하면서 기아 브랜드가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그 결과 지난해 3분기 기아의 RV 판매 비중은 69%까지 뛰어올랐다. 현재 판매되는 기아 차량 10대 중 7대는 RV라는 뜻이다.

기아가 현대차와의 합병 직후 승용 모델 라인업을 강화해 2010년 중반까지 승용차 판매 비중이 60% 이상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큰 변화다.

탈탄소 흐름에 맞춰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차를 공격적으로 출시한 것도 최대 실적에 힘을 보탤 것이다.

지난해 기아는 전기차(EV), 하이브리드차(HEV),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EV) 등으로 이뤄진 친환경차 부문에서 57만6000대를 판매했다. 이는 전년 대비 18.2% 증가한 수치다.

전체 판매에서 친환경차가 차지하는 비중도 전년 대비 2.3%포인트 늘어난 19.1%를 기록했다.

◇북미·유럽 전략모델이 최대실적 견인=RV 중심과 더불어 지역별 맞춤 전략도 지난해 기아의 최대 실적을 견인했다.

지난해 지역별 판매량을 살펴보면 기아는 미국(69만4000대~78만2000대), 유럽(54만3000대

~57만2000대)에서 전년 대비 각각 12.8%, 5.4%의 높은 판매 증가율을 기록했다.

북미와 유럽 시장 특성에 맞는 전략형 모델을 출시한 것이 주효했다.

기아는 2019년 미국 소비자 취향에 맞게 오프로드 성능을 강화한 북미 전략형 SUV 텔루라이드를 출시했고, 지난해 처음으로 연간 판매량 10만대를 돌파했다.

유럽에는 준중형 해치백 씨드와 차체를 줄인 준중형 SUV 스포티지 등을 내놓기도 했다. 그 결과 회사는 지난해 유럽에서 형제기업인 현대차(53만4170대)보다 많은 57만2297대의 판매량을 기록했다.

아울러 기아는 인도에서도 지난해 25만5000대의 판매량으로 6%대의 점유율을 유지했다.

◇고부가가치 차량으로 매출 100조 시대 연다= 기아는 창립 80주년을 맞은 올해 전기차 등 친환경차 시장을 집중적으로 공략해 작년보다 3.6% 많은 320만대를 판매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 매출은 1.3% 증가한 101조1000억원, 영업이익은 3.4% 늘어난 12조원을 달성하겠다는 공격적 목표를 내놨다.

기아는 "전기차 시장 둔화 우려가 있지만 EV9에 더해 EV3, EV5 등 중 소형 전기차를 내세워 친환경차 시장 리더십을 굳건히 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신세계, 대학생 취업 지원 현장실습 프로그램 성료



25일 이동훈(가운데) ㈜광주신세계 대표이사과 현장 실습 교육에 참가한 전남대학생들이 수료식에서 기념촬영을 갖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매장업무·모의면접 등 진행

㈜광주신세계(대표이사 이동훈)는 25일 지역 청년들의 취업을 돕고자 마련한 대학생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끝마쳤다고 밝혔다. 광주신세계는 지난해 7월 전남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참가 학생들의 호응에 7월에 이어 12월에 2회차 참가자를 선별해 현장실습을 진행했다.

참가 학생들은 매장업무, 지원 부서별 업무, 마케팅 전반, 현장실습, 모의면접 등 신세계에 대한 이해와 취업에 도움이 될 만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전남대 의류학과 이우희 학생은 "광주신세계에서 현장실습을 하며 백화점의 미래에 대해 새롭게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며 "실전과 동일하게 진행된 모의면접이나 실제 영업현장에서의 경험이 취업준비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훈 광주신세계 대표이사는 "광주신세계는 현장실습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실전과 동일하게 모의면접을 진행하고, 진자 고객을 만나 응대하는 등의 체험기회를 제공했다"며 "전남대 학생들의 현장실습이 단순히 스펙 하나를 추가한다는 의미를 넘어 청년들의 꿈에 한걸음 다가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전남지역 2개 업체 제품 조달청 '혁신시제품' 지정

바우텍 '원격제어 슬러지 분쇄기'·(주)금철 '태양열 집열기'

광주지방조달청장은 제4차 혁신시제품 지정심사에서 지역 2개 기업의 제품이 '혁신시제품'으로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혁신시제품 지정 제도는 상용화 전 제품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혁신성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제품을 지정한다. 이번에 지정된 제품은 주식회사 바우텍의 기어 구동 회전날개와 제어모듈을 적용한 '원격제어 슬러지(하수처리 과정에서 분리된 침전물) 분쇄기'와 주식회사 금철의 상하 2중으로 집열 하는 방식

의 '태양열 집열기'다. 노배성 광주지방조달청장은 "조달청이 지역 중소·벤처 혁신기업의 튼튼한 성장사다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수요기관에 혁신제품을 적극 홍보하여 판로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제 25대 농협중앙회장에 강호동 울곡농협 조합장



농협중앙회 제25대 회장에 강호동(60·사진) 경남 합천군 울곡농협 조합장이 당선됐다. 25일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이날 중구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진행된 선거에서 강 조합장이 1차 투표에서 607표를 얻어 1위에 오른 이후 결선에서 조덕현 동천안농협조합장과 맞대결을 벌인 결과 당선됐다. 결선 득표수는 강 조합장이 781표로 조 조합장(464표)보다 317표 앞섰다.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득표하면 당선되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어 1, 2위 후보자 간 결선 투표에서 강 조합장이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 강 후보자는 결선 결과 발표 뒤 당선증을 받고 "농협을 혁신하고 변화시키라는 뜻으로 알고 있

다"며 "지역농협이 주인이 되는 중앙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번 선거는 2007년 이후 17년 만에 직선제로 치러졌다. 이번에 조합장 1111명이 직접 투표에 참여했으나 표수는 1252표다. '부가의결권' 제도가 도입돼 조합원 수 3000명 미만 조합은 한 표를, 조합원 수 3000명 이상 조합은 두 표를 각각 행사했다. 울곡농협 5선 조합장인 강 당선자는 지난 1987년 울곡농협에 입사해 약 40년간 농업·농촌 분야에서 일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농협중앙회 이사를 맡았고 이 밖에 농협경제지주 이사, 상호금융 소비자 이사, 농민신문사 이사를 지냈다. 농협중앙회장은 4년 단임제에 비상근직이지만 농협 조합원을 대표하면서 인사와 사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흔히 '농민 대통령'이라고도 불린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테크노파크 기업지원 사업 설명회

광주테크노파크(이하 광주TP)는 '2024년 지역 기업지원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광주TP는 지역 내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정부와 지자체 산업육성방향과 기업지원 사업에 대한 종합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연초 통합 설명회를 열었으나, 올해 특별형 맞춤형 정보제공을 위해 사업별로 순차 개최하기로 했다. 지난 17일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설명회'를 연 광주TP는 오는 25-26일 '지역특화프로젝트 레전드(Region+end) 50+' 참여기업 모집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김경집 원장은 "광주TP가 지역 과학과 산업의 거점기관으로 지역산업과 기술의 혁신을 주도하여 광주가 글로벌 퍼스트 무버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

콘진원, 문체부 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 공모

448억 규모·57개 분야 진행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조현래·콘진원)은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에 착수할 참여기관을 공모한다. 올해 과제는 총 448억 원 규모로 지정공모 및 자유공모 분야에서 총 57개가 진행된다. 저작권, 콘텐츠, 인력양성 등에서 문화산업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개발사업 위주로 공모가 진행된다. 저작권 분야에서는 저작권 포렌식 수집 도구 개발, 생성형 AI, 웹3.0 등 신기술에 적용할 수 있는 선도형 저작권 기술개발 사업에 43억 원 규모로 6개 과제를 공모한다. AI저작권 이슈, 안무 저작권 음악방송 표기안 등이 이슈로 부상하고 있어 주목된다. 콘텐츠 분야에서는 올해 총 2회 공모를 진행하며, 14개 과제 총 138억원을 지원한다. 2분기에 12개 과제를 추가 공모할 예정이다.

공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군중 밀집도 파악, 실시간 분석을 진행하는 '인공지능 공연예술 안전환경 구축 개발사업'도 신설됐다. 23억 규모로 3개 과제를 지원할 예정이다. K-컬처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글로벌 문화기술 전문인력양성 등 4개 과제에는 36억 원이 지원된다. 이외에도 다년도 자유공모 1개 과제, 문화기업 혁신성장 기술개발사업 자유공모과제 등도 포함됐다. 이에 앞서 콘진원은 사업별 선정 절차, 유의 사항, 지정공모 과제 제안서 설명 등을 알려주는 사업설명회를 지난 24일 콘텐츠인재캠퍼스(서울 흥릉)에서 개최했다. 콘진원 홍보팀 강원훈 과장은 "이번 연구개발사업 지원은 대학과 기업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며 "지역에 거점을 둔 문화산업 관련 산, 학, 연의 연구개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최유민 기자 rubi@kwangju.co.kr

살아나지 않는 광주·전남 소비자심리지수

1월 92.1 전달 대비 1.9p ↓

광주·전남 지역민들의 경제 상황에 대해 심리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하락했다. 25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발표에 따르면 1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2.1로 전달보다 0.5포인트 떨어졌다. 가계수입전망은 전월보다 4포인트 줄었다. 전국의 소비자심리지수가 전월보다 1.9포인트 증가한 것과 상반된다. 지난해 7월을 기점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광주·전남 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 12월 반등에 성공했

으나, 이달 다시 하락했다. 이 지수는 장기평균치(2003년~2022년)를 기준 값 100으로 하며 100보다 크면 '낙관적',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임을 의미한다. 6개월 후와 현재를 비교한 금리수준전망CSI가 전월대비 광주와 전남 각각 -9. -10으로 감소폭이 컸다. 가계부채전망CSI 또한 전월보다 광주는 -3, 전남은 -1를 기록했다. 광주·전남 600가구(응답 543가구)를 대상으로 우편·전화 조사를 진행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광주·전남 제조업 체감경기 '암울'

BSI 68...전월 대비 13p ↓

광주·전남 제조업의 체감경기가 급감했다. 24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발표에 따르면 1월 광주전남 제조업 업황 BSI(기업경기실사지수)는 68로 전월 대비 13포인트 하락했다. 다음 달 전망BSI도 67로 12포인트나 떨어졌다. 전국 제조업 업황BSI가 전월보다 1포인트 오른 80인 것과 비교해 12포인트나 낮다. 광주·전남 제조업체들의 체감경기는 기준치(100)를 크게 밑돌았다. 업황 BSI는 경기가 좋다고 응답한 업체 비율에서 나쁘다고 응답한 업체 비율을 뺀 뒤 100을 더한 값이다. 기준치(100) 이상이면 긍정 응답 업체 수가 부정 응답 업체 수보다 많고, 이하는 그 반대다. 지난달 광주·전남 제조업 업황 지수는 2023년 중 가장 높은 81이었는데, 급락했다. 제조업 매출BSI는 75로 전월 대비 6포인트 하락했고 다음 달 매출전망BSI도 76으로 전월과 비교해 6포인트 내려갔다.

제조업 신규수주 BSI는 77로 전월 대비 6포인트 감소했지만, 다음 달 신규수주 전망 BSI는 82로 3포인트 올랐다. 제조업 경영 애로사항으로 불확실한 경제 상황(24%), 인력난 및 인건비 상승(14.9%), 내수 부진(14.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비제조업의 업황BSI는 65로 전월 대비 9포인트 하락했고 다음 달 업황전망BSI는 66으로 2포인트 내려갔다. 조사는 지역 내 제조와 비제조업체 585곳을 대상으로 지난 9일부터 16일까지 이뤄졌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코스피	2470.34 (+0.65)
↓ 코스닥	823.74 (-12.47)
↑ 금리(국고채 3년)	3.313 (+0.013)
↓ 환율(USD)	1335.80 (-1.20)